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라 “너 진짜야?”

강사 : 도법 스님

일시 : 2009년 11월 26일

주제 : 여성! 부처를 말하다

장소 : 인드라마생명공동체 교육센터

주최 : 인드라마생명공동체

경전을 보는 관점은 크게 둘로 나뉘 볼 수 있다. 하나는 경전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보고 따르는 성문승과 경전의 말을 그대로 보지 않고 다각적으로 보는 보살승이다. 보살승은 병에 따라 처방되는 약이 다르듯, 사람들의 문제의식에 따라 경전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승만경>은 바로 보살승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도법 스님의 <승만경> 마지막 강의에서 부처님의 팔만사천 약방문이 어떻게 중생들의 병에 적재적소로 쓰이는지 그 속으로 들어가 보자.

#대승원력 바로 세우자

<승만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원력사상입니다. 원력이라는 것은 결심하는 것을 말하죠. 결심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잘 안되지만 자꾸 노력해서 채워가야만 하죠. 이 결심을 얼마나 크고 확고하게 세웠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심을 했으면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모두가 본래부처(本來佛)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중생은 무명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본래 깨달은 상태이지만 어떤 계기에 의해서 미혹에 빠져 무명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성서에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금기시했던 사과를 따먹음으로써 죄인이 되죠. 만약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죄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가장 순수하고 완전한 상태였을 겁니다. 본래부처니, 본각(本覺)이니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사과를 따먹기 이전의 아담과 이브 같은 존재로 말이죠.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생사도 없습니다. 본래부

처와 자성, 청정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자가 진리의 자식이고, 부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본래부처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 언제 어디서나 본래부처로 살겠다고 각오하는 것입니다. 본래부처로 사는 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들이 본래부처니, 모든 것을 부처를 대하듯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비심이라고 하죠. 내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부처이며, 부모, 친구, 연인, 하다못해 동물까지도 본래부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아니다’를 따지는 것은 보편성이 아닙니다. 이런 보편성을 뛰어넘는 것이 본래부처로서 실천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본래부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 웅맹심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부처를 섬기듯 상대를 대접한다면 바로 그것이 본래부처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본래부처니, 진정으로 당신을 존경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만 확실하게 알면 벽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서로간의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거울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꾸밈없이 비춥니다. 내 얼굴에 검은 솟이 묻어 있어 닦

아야 한다면 거울이 아닌 내 얼굴을 닦아야 합니다. 세상은 다 내 얼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리 오는 것이죠. 진정성이 전 달되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상대를 본래부처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저절로 화목하고 평화로워지며, 이것이 본래부처의 행위입니다.

#본래부처이니, 언행일치의 삶 살아야

“부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경은 여래의 진실한 제일의 공덕(功德)을 찬탄한 것이니 이와 같이 받아 지녀야 한다.’”

<승만경>에서 말하는 여래장사상은 결국 본래부처 사상입니다. 불성론 보다 고도화 된 것이 본래부처사상입니다. 불성론은 ‘모든 존재는 부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본래부처는 ‘지금 이대로 부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가 곧 부처다. 도를 닦아서 부처가 아니라, 본래부터 부처라는 것이죠. 본래부처를 잘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면 그 다음은 절로 수행이 됩니다. 본래부처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으면 당신이 하는 행동이 곧 부처의 행위라고 보는 것이죠. 가야할 방향을 정확히 잡았으면 그냥 전진만 하면 됩니다. 때론 빨리기도 하고, 느리게 가기도 하지만 그곳으로 가다보면 언젠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 있다면 행역선좌역선(行亦禪 坐亦禪: 움직여도 참선, 앉아도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을 잘 잡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모래를 써서 밥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방향을 잘 잡은 것은 쌀을 잘 써서 밥을 하는 것이 되죠. 사람들은 한 만큼 잘 되지 않는다고 불평 하지만 세상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 만큼 실현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해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 또한 이런 욕심 때문입니다. 세상이치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한 만큼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것을 늘 화두에 뒤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 잡아 대무심행 해야

부처님은 6년간 고행을 하셨지만, 결국 이것은 부질없다 하시며 중도의 길을 찾으셨습니다. 중도란 쉽게 말하면 적당주의를 말합니다. 알맞게 하는 것이죠. 알맞게 하는 것은 곧 적재적소입니다. 이 말은 수행을 하던 무엇을 하든지, 자신에게 알맞게 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수행을 일만큼 했다고 해서, 내가 굳이 그 사람을 따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흥내를 낼 수는 있으나, 그것 또한 자신에게 맞게 응용해서 해야 합니다. 병에 따라 처방되는 약이 다르듯이, 모든 일에는 자신에게 맞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옆에서 누가 무얼 하던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런 관념에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방향만 올바르게 잡아서 그대로 행하면 될 뿐입니다.

본래부처는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 논리입니다. 나



도법 스님.

나에게 맞는 행동과악 · 확신하면 ‘본래부처’ 만나는 모든 사람부처로 대하는 것이 자비

에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잘 이해하고 파악한 후, 확신만 가진다면 그것이 본래부처인 것입니다. 하나는 자비, 두 번째는 대무심행이 본래부처의 큰 행위입니다. 대무심행은 온전히 만족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만족하면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를 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래부처기 때문에 따로 부처를 찾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비는 말 그대로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을 부처를 대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이어가가는 것이 바로 수행인 것이죠.

<승만경>이 복잡해 보이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본래부처이며, 본래부처로 사는 것에 내 인생을 바치는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보살행은 세상이치에 맞게 마음 세우고 실천하는 것 부처님 가르침을 팔정도라고 합니다. 팔정도는 간단히 얘기하면 세상이치에 맞게 마음 쓰고 행동하며,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활동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 현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본래부처라는 사실에는 확신을 갖되, 부처님에 대해선 끊임 없이 ‘진짜냐’고 따져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스스로 비판하고 따져서 무너진다면 그것은 부처가

아닙니다. 본래부처인데 성질을 내고 화를 낸다면지 욕심을 부리는 것은 본래부처 답지 않은 행동들입니다.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너 진짜야?’ 하고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팔정도에서도 가장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정명입니다. 정명(正命)대로 사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만족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면서 살면, 어떠한 상황에 부딪혀도 출가분해지고 편안해 집니다.

팔정도를 하기위해서는 본래부처론인 세 가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는 본래부처에 대한 확신을 두면 화두가 곧 본래부처이며, 두 번째는 무심행을 현실화시켜 분별방상을 타파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자비행입니다. 사람들에게 본래부처의 삶을 살도록 보살행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하는 세 가지 공부입니다. 이것을 잘 마음에 새기고 새겨서, 내 삶에서 본래부처로 산다면 바로 승만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고마운 인연은 큰 공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요, 결과이며, 미래의 씨앗이고, 꽃으로 피어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끝>

정리=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승만경>강의를 들으며 승만 보살의 서원을 되새기며 실천을 다짐하는 불자들.

생명있는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 하시던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기도와 농사 짓는 수행속에서 직접 재배한

청정지역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당조고추, 향과 맛이 뛰어난 사과, 배추, 쌀, 등등 농산물을 대덕 큰 스님 및 불자님들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와 성인병 예방에 좋은 당조고추는 많은 인기를 얻어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흥 당조고추를 가루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토원을 찾아주시는 불자님과 대중들이 직접 따 흘리며 한점 부끄럼 없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의 수확의 기쁨을 여러 불자님과 나누고자 지면으로 판매를 알리오니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성 불 하십시오

경북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 22번지 054) 383-0407 / 010-2750-4394

정 토 원 주지 고봉 합장

정토원에서 재배한 농산물

1. 사과
2. 당조고추 (고추가루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3. 홍화씨
4. 배추, 고사리, 고구마, 쌀

사찰 화재보험 안내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향·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개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담보내용

구분	와 재	와 재	상 해
기본 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 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정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 ◆각 건축물의 건축(중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3호 **010-7344-1881**